

“투쟁의 최전선은 이곳 거제다”

대우조선하청노동자 투쟁 승리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 “윤 정권 공권력 투입 시 총파업”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에 힘을 싣고자 전국에서 노동자, 시민들이 경남 거제에 모였다. 4,000여 명의 노동자, 시민들은 “산업은행이 책임지고, 대우조선이 해결하라”라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7월 8일 오후 대우조선해양 남문 앞에서 ‘대우조선하청노동자 투쟁 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앞서 7월 2일 민주노총 영남권대회·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 를 통해 “7월 2일 영남 노동자대회를 마치고 민주노총답게 다시 모였다. 어제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에 집중하기로 결의했다”라며 “민중의 위기를 타파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투쟁의 최전선은 이곳 거제다”라고 강조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지난주 유취안 동지와 손을 맞잡았다. 유취안 동지는 살고 싶어 스스로 0.3평 감옥에 들어갔다고 말했다”라면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하도록 모두 함께 싸우자”라고 호소했다.

유취안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등 1도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일곱



명 조합원들이 전화로 대회에 참여한 노동자, 시민들에게 인사말을 전했다. 6월 2일 파업 시작한 지 37일째, 유취안 부지회장이 0.3평 감옥에 자신을 가둔지 17일째다.

유취안 부지회장은 “오늘도 총들이 있었다. 노동자들이 왜 서로를 겨냥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조선하청 지회는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가 무너지면 전국의 비정규직 동지들의 희망이 무너진다. 반드시 승리해 기쁨을 함께하겠다”라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

1도크 농성 중인 이학수 조합원은 “여기 올라오기까지 쉽지 않았다. 무섭고 두려웠다. 하지만 제일 무섭고 두려운 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었다”라며 “결심하고 올라왔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발 짝도 물러나지 않고 싸우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옥포조선소 1도크는 한국 사회 불평등을 여실히 보여주는 현장이다”라면서 “하청노동자들의 요구는 소박하고 정당하다. 불황이라며 삭감한 임금을 원상회복하고, 노동조합을 만들었으니 노동조합을 인정하라는 요구다”라

고 강조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윤석열 정권이 공권력을 투입하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결의했다. 금속노조 위원장으로서 모든 것을 던져서 이 투쟁을 승리로 만들겠다”라며 “우리의 요구를 조만간 수용하지 않으면 7월 20일 총파업 투쟁의 칼날은 윤석열 정부와 대우조선을 향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본대회를 마무리한 결의대회 참가 노동자, 시민들은 대우조선 서문을 향해 행진했다.

김형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은 서문 앞 마무리집회에서 “우리는 노동자다. 노동자가 노동자 투쟁을 가로막을 수 없다. 함께 가야 한다”라며 “노동자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자본에 맞서 우리는 민주노총을 지켜왔다. 살아있는 노동자의 조직 민주노총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호소했다.

산업단지 노동자 일하다 쉴 곳 없다

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발표 ... 공동휴게실 설치, 20인 미만 사업장 차별 시행령 바뀌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산업단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공간이 필요하다고,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정의당과 함께 7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 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발표·대책 마련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발제와 토론자들은 개별 사업장 휴게공간 설치가 어렵다면, 공동휴게실 설치를 대안으로 검토해 시범사업 등으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 노동자들과 정의당 이은주, 강은미 의원, 박준도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위원, 나상명 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사무관, 안무권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구조고도화 사업실장이 참석했다. 토론 좌장은 이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이 맡았다.

주제 발제는 박준도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위원이 맡았다. 박준도 연구위원은 지난 6월 20일 발표한 전국 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은 사업장일수록 휴게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준도 연구위원은 “저임금 노동자들은 카페에서 쉴 여력이 없어 업무공간에서 쉴 수밖에 없다. 법취지를 살리려면 20인 이상, 5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 더 작은 사업장 노동자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준도 연구위원은 실태조사 결과 공동휴게실이 있다면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으며 “휴게실 자체가 현장에 부족하고, 저임금 노동자들

이 부족한 휴게실로 인한 피해를 집중해서 입고 있다는 사실이 결론이다”라고 내용을 요약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은 “한국 사회에서 휴식의 의미가 커지는 만큼, 휴식권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며 “특히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220만 노동자 휴식권 차별 해소를 위한 법과 제도를 잘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정우 국장은 “휴게실이 없는 주요 원인은 ‘공간 문제’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형 공장이 많이 생기고 있다. 산업단지 땅값이 올라갈수록 공간 문제가 심화한다”라면서 “휴게시설을 어떻게 만들고 유지할 건지 노·정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최정우 국장은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해외 휴게시설 관련 법안을 사례로 들며 “규모 차별 없이 실제로 휴식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관점에서 관리 기준을 세세하게 설정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태현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회 부지회장은 “휴게실이 있어도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라며 “휴게시간을 명확히 정하고 노동자가 자유롭게 쓰도록 노동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박태현 부지회장은 “작은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공간이 부족하다면,



식당 골목이나 지식산업센터 안에 공동휴게실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라며 “공동휴게실을 건강지원센터, 작업복 세탁소, 노동상담소 등 복합휴게공간으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재영 금속노조 인천지부 부평공단지회장은 “사측은 업무공간 대기를 쓴다고 표현하지만, 휴식시간은 사용자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라며, ▲노동자 휴게실을 임원 흡연실로 만든 업체 ▲현장관리자 업무공간을 개조해 관리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업체 등 노동자들이 편히 쉬지 못하는 현장 사례를 공유했다.

이재영 지회장은 “공동휴게실이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일 수 있다”라며 “공간이 좁은 작은 사업장의 휴게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내 휴게실이 부족하거나, 시설이 열악한 휴게실 해법으로 공동휴게실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참석한 의원들에게 “정부, 공단이 정리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니, 시범사업하는 지역에 가서 현장노동자, 해당 산업단지공단, 노동부가 모두 참여하는 지역 간담회를 해보자. 시범사업에 의원실이 참여해 정책을 실제 집행하도록 역할을 해달라”라고 제안했다.